



대천덕 지음 | 홍상사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

● 민수진



기독교와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2천 년 전의 역사를 급박하게 돌아오는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는 것이 어찌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가. 공부 아니면 미디어로 접할 땐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절제' '절제' 등은 기성세대보다 더 큰 괴리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일반 직장보다 편하다(?)는 교직에 있으면서도 나의 가치관은 세상의 질서와 끊임없이 부딪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나는 기독교 세계관 관련 강의를나 책들을 찾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독교, 생명력이 넘치는 기독교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대천덕 신부님의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은 이러한 북미들을 해소시켜 준 책 중 하나다. 이 책의 탁월함은 필자의 시야가 개인은 물론 공동체, 나아가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책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이야기하며, 우리도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온통 '나'에만 집중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휩쓸려 지 않고 살아가려면 평야 생활을 통해 강건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가장 지혜롭고 신하고 올바른 길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강건해야 한다.

대천덕 신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사명이 시작된다고 본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힘써 그분을 찾아야 하고 일단 뜻이 계시다면 기꺼이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 교회에 속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며, 성경공부를 비롯한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분명한 목적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면 '타락한 인간'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시함 받은 인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 차원의 사랑을 받은 인간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 생활을 영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개인이 변화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와 학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우리는 사회 전반 곳곳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살아있는 세상은 속에서 이웃의 비곤, 소외, 비참한 상태에 관심과 정성을 쏟으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사명의식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닐까? 성경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영성의 비밀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영위할 신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부르심 중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대천덕 신부님은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을 의미하며, '그의 의'는 나를 위한 의뿐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의 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경께서 순종하는 마음은 물론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부여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장급이 없다. '하라고' 하는 대신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천덕 신부는 성경의 원리가 2천 년 전은 물론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치,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하나님

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셨고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급을 없애고 빈곤을 방지하고 구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사업, 토지법, 교회와 학교 등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경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첫째, 사업에서는 사업에 종사하는 태도와 목적이 중요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확장이 사업의 동기가 되어야 하며, 신하고 유익하고 건설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 계명, 원칙에 부합하는 윤리적 방법을 사용하되, 냉정하고 초연한 자세로 경기 동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진실하고 침착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든 행위와 비용 지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수익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성경의 원리에 따라 토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권턴 신부는 토지와 재산의 구별을 주장한다. 재산은 노동의 결과로 한정하고, 토지는 그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토지를 동등하게 사용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인간 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가족에게 자기 소유의 땅을 기증으로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토지가지세 제도는 생산, 고용 분배, 경제 안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교회는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책임져야 한다. 교회가 자비와 정의의 차원에서 지역 단위로 가난의 문제를 접근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전에 다갈 수 있을 것이다. 자비의 차원에서 전도하고 코이노니아를 진재한 나눔을 실천한다. 특히 기술과 조합 형성을 통해 효율적 경영, 법적 전문성을 나누게 되면 진정한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의 차원에서 는 토지가지세 등의 토지개혁운동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기도 사역이 이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기도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실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서의 기도이다. 우리는 성경을 의지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믿음과 열정적인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빛째, 학교에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학문을 연구해야 한다. 학생들이 클럽에 가거나 술을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어떤 심리학, 교육학, 경제학 등을 가르쳐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인본주의 및 이성 중심의 관점을 배격하고 분명한 성경적 입장으로 전환하여 일반 학계에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서로 협력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만남의 장 그리고 성경적 토대 위에서 각자의 전공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 책에는 이 외에도 한국교회와 해야 할 일과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구체적인 예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누군가 '현재에 대한 깊은 불만족을 느끼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했다. 아무나 가질 수 없고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읽어내는 눈, 그 속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를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 기도하면서 시대를 기술러 변혁을 꾀하는 추진력을 갖춘 자, 무엇보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이러한 멋진 인생은 우리뿐 아니라 매주 주일학교에서 만나는 개구쟁이 아이들에게도 허락되어 있다. 아이, 예정되어 있다. <기독교는 오늘을 위한 것>은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법한 책이다. 따라서 내(교사가)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로 전달해 주는 것이 좋겠다. 내가 내 아이를 가장 잘 알기 때

문이다. '나라는 통로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질서의 회복을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하게 될 날을 그려 본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목숨 걸고 가르쳐야 한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연령과 배경은 다양하다. 나는 아이들이 일어든지 못할 법한 이야기는 적당히 편집하곤 했다. 그러나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려서 들었던 이야기, 스쳐 지나간 장면, 무심히 바라봤던 누군가가 뇌리에 박혀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 중에도 상관없이 말이다. 그렇게 보면 내가 길러내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의탁하고 지혜를 구하며 부어 주시는 대로 쏟아내는 것이 답이다.

단순히 변호사, 회계사, 외교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평등해지도록 토지법을 개정하는 법조인, 하나님 의의가 드러나도록 투명 경제를 실천하는 회계사, 기주국의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외교관이 비친이 되는 아이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꿈이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소망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성령 충만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청지기로 길러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원대한 계획 아래 우리를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셨다.



민수진 부산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이며, 부산광역시 교육청 독서교육지원단, 논술지원단, 문항분석, 개발팀, 부산광역시 사북고 육지영웅 창의영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고자 외국어문 한국어교육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해외 파견을 두 고 기도중이다. 현재 수영로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다.